

‘노는 사회’ 만드는 편안한 종교 되어야



김형효 교수가 대한불교진흥원 대법당에서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부작용 생겨 무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말해야

#22세기는 불교가 주역

이번 강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대주제는 ‘세상을 위한 불교’입니다. 오늘날 불교가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불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지식인들이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불교는 여자가 뒤처지고, 도태되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주역이 전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시대가 아닌 불교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불교는 현재 가장 앞선 사상을 가진 종교입니다.

현재 미국 최고 지식인들은 점차 불교사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변하면 자연스레 한국도 변하게 됩니다. 세계는 이제 점차 불교로 눈을 돌리며, 바뀌어져 갑니다.

이럴 때 불교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22세기에 불교가 가장 빛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불사선 불사악

세상을 위한 사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 문명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윤리 문화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에서 발달된 것이고, 도덕윤리 문화는 동양의 유교문화에서 강조된 것입니다. 근대화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중요시되면서 기독교의 세력도 점차 강화됐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에는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배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도덕윤리 문화는 유교문화에서 발달된 것입니다. 조선조 500년의 유교사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스님이 8대 천민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불교가 억압 받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와 유교는 항상 선(善)만을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도 항상 악과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악과 투쟁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육조해능 선사(肉造解能 禪師)는 ‘불사선 불사악(不惡善 不思惡)’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길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화두를 들고 살아야 합니다.

강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형효 명예교수

일시 : 2010년 2월 5일

주제 : 세상을 위한 불교

장소 : 대한불교진흥원 대법당

주최 : (재)대한불교진흥원

하루에 나를 스쳐가는 사람만 해도 수십에서 수백에 이른다. 사람들은 생김새부터 옷차림까지 어디 하나 같은 구석이 없다. 세상은 이렇게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우러진 곳이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할 터인데, 어느 기준이 맞는 것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형효 교수는 이러한 기준을 불교의 ‘공심(空心)’으로 바라보라고 제안한다. ‘공심’으로 세상을 즐기며 편안하게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여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즐겁고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같은 마음이다. 김형효 교수는 ‘세상을 위한 불교’ 강좌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불교적 사유로 세상을 바라봐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말한다.

#편리주의, 도덕주의 벗어나야

과학기술의 편리, 도덕윤리의 선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기술은 유의적인 성격이며, 도덕윤리는 당위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리주의는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가 편리주의로 바뀌면서 우리는 문명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편리주의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편리하지 않은 것은 점차 뒤로 밀려나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들이 모두 그렇게 변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모두 편리주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당위주의는 도덕, 윤리만을 강조합니다. 도덕과 도덕주의는 다릅니다. 도덕주의는 도덕을 최고의 가치 있는 규범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류는 도덕적이지만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엄청난 도덕주의로 남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회를 하는 것은 털어서 먼지가 나기 때문에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도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옹고집이 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별폐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은 자연스레 또 다른 사람들을 탐선하게끔 만듭니다. 도덕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탐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자, 본능입니다.

선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항상 싸움을 하는 것도 자신들의 선이 맞고, 상대방의 선이 잘못됐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모든 것을 윤리 도덕으로 무장하면 정말 무섭고 겁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불교가 보편적 사상

그럼 어떤 것이 보편적인 사상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교는 무이를 얘기합니다. 무이는 ‘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空心·虛心)만 있을 뿐이죠. 불교가 말하는 이런 공과 허가 바로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과 허를 생활의 진리로서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과 부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은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정경뿐 아니라 사견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불교의 특징입니다. 사회는 아무리 정화하려고

해도 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도덕만으로는 절대 사회가 구원되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게르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이유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고, 스탈린은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은 문화혁명을 위해 30만 명의 지식인을 처형했습니다.

불교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의적인 사고방식도 아니며, 당위적인 도덕윤리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불교는 무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말해야 합니다. 무의라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유로 오해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적인 사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자연스레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가 바로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미가 왜 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양에서 유명한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장미는 장미가 피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미가 왜 피는가에 대해서 기독교는 신을 위해 핀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니

다. 장미는 단지 피고 싶어서 핀 것 뿐입니다. 이제 불교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허·공심으로 세상을 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은 질병에 걸립니다. 이것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는 ‘노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재밌게 놀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악인도 놀이에 빠지면 이미 악인이 아닙니다. 선인도 놀이에 빠지면 선인이 아닙니다. 그냥 즐거울 뿐입니다. 불국토는 5000만을 불보살로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놀이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마음씨가 안 좋은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만이 앞으로 우리사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나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술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는 아름다움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불교는 지금 이고득락의 길을 세상에 의처야 합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2월 5일 김형효 교수의 ‘세상을 위한 불교’ 강좌를 경청하는 사부대중들.

사찰대출안내

사찰대출 전문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입니다.
사찰은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 기관으로 지역 사회 개발과 회원 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 기관이라 자부합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 하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출장비, 수수료, 깎기등이 일체없습니다~
하루만에 갚아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대출지역 : 전국
대출형태 : 담보대출
대출금액 : 3천만 이상
대출금리 : 연 7.2%~7.6%
대출기간 : 3.5년(연장가능)

담당직통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죽도2동의 세이브-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뺀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뺀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뎡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박지원(객원기자) 051)632-0064 / 010-8544-0351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